

소니코리아 SONY

키타지마 유키히로 신임 대표 선임



소니코리아가 7월 1일부로 키타지마 유키히로 (KITAJIMA Yukihiro, 北島行啓) 소니 글로벌 세일즈 및 마케팅의 퍼스널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PEMK) 부문장을 소니코리아 신임 대표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부임한 오쿠라 키쿠오 전 대표는 1992년 소니에 입사해 1994년 홍콩에서의 첫 해외 근무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17년 4월, 소니코리아에 부임해 한국 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카메라 부문에서는 DSLR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심으로 시장의 패러다임 재편해 12년 연속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 1위를 수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오디오 부문에서는 '비욘드 뮤직(Beyond Music)' 전략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또한,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 체제에서도 높은 업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후 주 2회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 직원 만족도와 조직 경쟁력을 강화했다.

키타지마 유키히로 대표 약력

- 1969년 일본 도쿄 출생
-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소니 입사
- 2000년 소니 일본, 디지털 이미징 사업본부 상품기획부 대리
- 2003년 소니 일본, 디지털 이미징 사업본부 상품기획부 총괄과장
- 2007년 소니 유럽, 디지털 이미징 프로젝트 마케팅 부장
- 2012년 소니 일본,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비디오 & 사운드 사업부 상품기획부 총괄부장
- 2016년 소니 아시아 퍼시픽, 비디오 & 사운드 프로젝트 마케팅 이사
- 2021년 소니 일본, 글로벌 세일즈 & 마케팅 / 퍼스널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부문장
- 2025년 소니코리아, 대표

새로 선임된 키타지마 유키히로 대표는 소니 본사에서 디지털 이미징(DI)과 비디오 & 사운드(V&S) 부문의 영업, 제품 기획, 마케팅 등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두루 경험했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비즈니스 경험까지 겸비한 인물이다. 폭넓은 실무 경험은 물론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장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내에서 소니 제품과 서비스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ONY

소니코리아

S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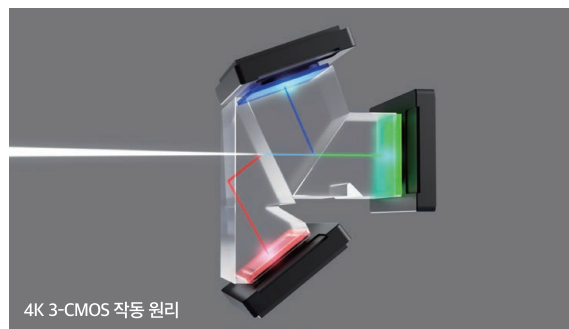
4K 3-CMOS 센서 플래그십 핸드헬드 XDCAM 캠코더 'PXW-Z300' 출시

소니코리아가 1/2인치 4K 3-CMOS Exmor R 센서 및 최신 BIONZ XR™ 이미지 처리 엔진, 전용 AI 프로세싱 유닛을 탑재한 플래그십 핸드헬드 XDCAM 캠코더 PXW-Z300을 출시한다.

국내에서 올해 가을에 출시 예정인 Z300은 세 개의 독립적인 수동 컨트롤 링이 포함된 프로페셔널 렌즈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뉴스, 스포츠, 기업, 종교, 이벤트, 다큐멘터리, 라이브 프로그램, 리얼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PXW-Z300은 탁월한 화질, 17배 광학 줌 렌즈, 전자식 가변 ND 필터와 다양한 조작 기능을 결합한 모델로, 고품질 4K 60p 레코딩뿐 아니라 AI 기반 피사체 인식 기능으로 정밀한 자동 초점 성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촬영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렉시블 LCD 암과 스마트폰 및 데이터 전송기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측면 V-마운트가 도입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비디오 파일에 디지털 서명을 직접 내장하는 캠코더로, 콘텐츠 진위 여부 등 콘텐츠 제작 업계의 진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콘텐츠 인증이 가능하다.



4K 3-CMOS 작동 원리

PXW-Z300은 향상된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어 5G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는 최신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지원해 촬영 현장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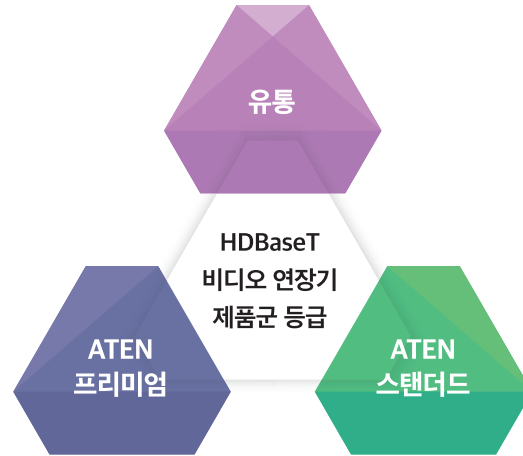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마케팅팀 담당자는 “이번 신규 캠코더는 2018년 전작 출시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콘텐츠 진위 확인을 위한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액션이 가득한 콘텐츠, 속보, 교육용 다큐멘터리 제작 등 뉴스 및 프로덕션 업계 종사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이텐 코리아



프리미엄 HDBaseT 비디오 연장기 라인업 선보여

ATEN Korea가 자사의 HDBaseT 비디오 연장기 제품군을 세 가지 등급으로 체계화해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라인업은 △ 유통 제품군 △ ATEN 스탠더드 제품군 △ ATEN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설치 환경과 기술 요건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의 대표 모델인 VE1843은 아르떼 뮤지엄의 미디어월에 실제 적용되어, 고화질 신호 전송의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나의 케이블, 글로벌 표준

ATEN의 HDBaseT 기술력

HDBaseT는 하나의 LAN 케이블(Cat 6a 기준)만으로 초고 화질 영상, 오디오, USB, 제어 신호, 전원까지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글로벌 AV 전송 표준 기술이다. 복잡한 배선을 단순화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형 회의실, 전시관, 스마트 캠퍼스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하다.

ATEN은 HDBaseT 얼라이언스의 공식 기여회원(Contributor Member¹⁾)으로, 기술 적용을 위한 전문 인력과 검증 체계를 모두 갖춘 기업이다. 다수의 국내외 프로젝트를 통해 입증된 신뢰성과 품질로, 변화하는 AV 환경 속에서도 더욱 정교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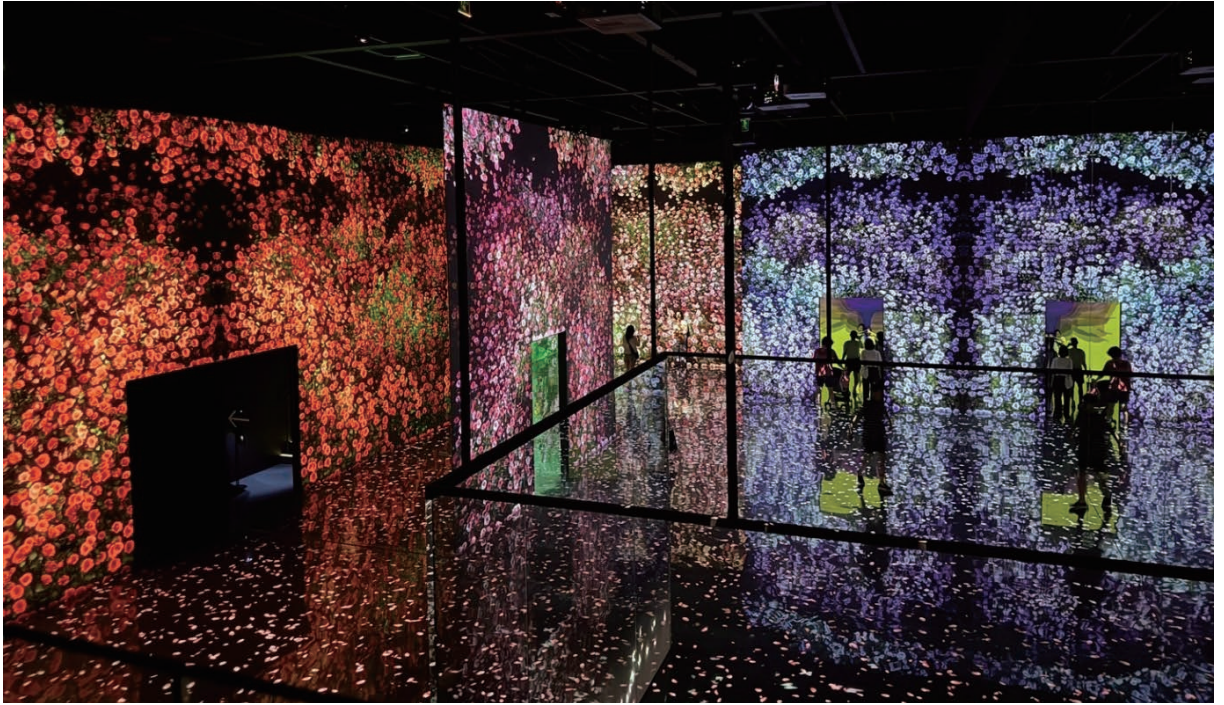
제품 라인업 구분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선택지 제공

ATEN은 다양한 설치 환경의 기술 요건에 따라 HDBaseT 연장기 제품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 ☑ 유통 제품군은 영상 신호 전송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충실히 제공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구성되어 중, 소형 회의실이나 단순한 디스플레이 연장 용도로 적합하다.
- ☑ ATEN 스탠더드 제품군은 전원 전송(PoH), 양방향 제어 (IR/RS-232), 오디오 디임베딩(De-Embedding)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교육 환경이나 중대형 회의실처럼 복합적인 신호 제어가 요구되는 공간에 적합하다.
- ☑ 프리미엄 제품군은 초고해상도 True 4K 전송, 듀얼 디스플레이 출력, USB 연동, 안정적인 100m 장거리 전송 등 고급 사양을 지원해, 미디어월, 전시관, 공연장 등 전문 AV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1. ITU-R SG6 국가기고서, 6/65(2025.02.14.) Brazilian Next-Generation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실사용 사례

VE1843, 아르떼 뮤지엄에 도입

ATEN의 프리미엄 True 4K HDMI/USB HDBaseT 3.0 트랜시버인 VE1843은 True 4K HDMI 신호를 최대 100m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며, HDMI 오디오 임베딩 및 디임베딩, 전역 IR, 양방향 RS-232 제어, 기가비트 이더넷, USB 2.0 신호 채널 바이패스 전송 등 다양한 고급 기능을 지원하는 통합형 솔루션이다.

해당 제품은 최근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르떼 뮤지엄'의 부산, 제주, 카타르, 두바이 전시에 실제 적용되어, 고해상도 신호 전송의 안정성과 설치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ATEN은 영상 품질, 전송 안정성, 설치 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하며, 고난도 디지털 전시 환경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다.



ATEN Korea는 앞으로도 회의실, 강의실, 전시관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AV 환경에 최적화된 HDBaseT 비디오 연장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확대·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변화하는 공간, 진화하는 AV 기술 흐름 속에서 ATEN은 더욱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상세 정보 및 데모 요청 ATEN Korea 마케팅팀 marketing@aten.co.kr 02-467-6789

디브이네스트



스트리밍 전문 브랜드 SuperSTREAM 런칭



방송장비 전문업체인 ㈜디브이네스트가 안정적인 스트리밍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스트리밍 장비 전문 브랜드인 ‘SuperSTREAM’을 런칭했다.

다양한 SuperSTREAM 제품들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간편한 설정과 안정적인 동작을 통해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디브이네스트의 이광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을 선두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송국, 기업체 위주의 콘텐츠 제작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재능을 가진 개인 모두가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RTMP 프로토콜의 제약을 뛰어넘는 SRT/NDI와 같은 차세대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라이브 스

트리밍은 더는 유튜브에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SRT를 통해 사용하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카메라라도 직접 SDI로 연결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NDI는 기존의 SDI 기반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새로운 프로덕션 운영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소한 스트리밍 인코딩, 디코딩에 대한 개념과 함께 매년 새로운 기능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비싸기만 한 구형의 제품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신형 제품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SuperSTREAM은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 운영을 통해 검증된 제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필드에서 인정한 제품들을 통해 여러분의 스트리밍 운영을 더 쉽고 안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SuperSTREAM은 독립형으로 운영되는 E3 인코더에서부터 최대 18채널의 12G-SDI를 인코딩할 수 있는 4K Cradle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는 본사의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인코딩/디코딩 구성을 상담받을 수 있다.

‘SuperSTREAM’은 스트리밍 장치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품의 정확한 기능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디브이네스트의 스트리밍 솔루션 전문 브랜드이며,



SuperSTREAM 인증 로고가 부착된 제품은 디브이네스트의 검증을 통해 안정성과 기능을 검토한 제품으로 사용자들의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erSTREAM ‘E3’

3G-SDI & HDMI 입력의 강력한 스트리밍 인코더



SuperSTREAM ‘D350’

스트리밍 소스를 SDI/HDMI로 출력하는 다기능 4K 디코더



SuperSTREAM ‘N50’

12G-SDI 입력을 지원하는 4K 스트리밍 인코더



SuperSTREAM ‘N60’

HDMI 2.0 입력을 지원하는 4K 스트리밍 인코더



SuperSTREAM ‘ProSRT’

4채널 SRT 인코더/디코더를 1RU 사이즈로!



SuperSTREAM ‘4K Cradle’

최대 18채널의 4K 인코더를 2RU 사이즈로!